

제자리 걸음 걷는 석방협상

# 탈레반 “맞교환 없인 협상도 없다”

## 협상 대표 치안 문제로 탈레반 못 만나 한국정부서 보낸 의약품도 전달 못해

한국 인질 22명의 석방을 위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반군 탈레반간의 협상이 제자리를 걷고 있다.

‘인질-탈레반 죄수’ 교환 석방을 요구하는 탈레반과 이에 대한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아프간 정부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피랍 열흘째인 28일의 협상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는데 이어 29일에도 협상은 좀처럼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프간 정부협상단의 대표인 와히둘라 무자디디는 29일 오전 아프간 이슬라믹 프레스(AIP)에 탈레반과의 다음 협상이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협상이 끝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탈레반 사령관의 대변인도 29일 오전 현재 AIP에 탈레반과 정부간 협상이 열리고 있지 않다고 탈레반은 죄수 석방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모하마드 유수프 아마디도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거듭 탈레반 죄수 석방을 주요 의제로 들고 나오면서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정부에 석방을 원하는 탈레반 수감자들의 명단을 넘겼으며 이들의 석방이 바로 우리의 주요 요구사항”이라며 아프간 정부가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특히 인질 구출을 위한 정부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만약 정부가 무력을 사용한다면 이는 인질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으로 탈레반은 마지막 한 명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인질이 억류된 가즈니주(州)

의 일부 소식통 사이에서는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전날에도 사실은 치안문제로 정부 대표단과 탈레반이 서로 만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인질 앞으로 보낸 의약품이 탈레반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협상은 내용면에서도 교착상태이다. 탈레반 지역 지휘관인 압둘라 잔은 29일 신화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데 진전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탈레반은 지금도 탈레반 죄수들의 석방만이

교착 국면을 타개할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프간 정부대표단은 다른 방안이라면 고려해볼지 하지만 죄수 석방은 선택이 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대표단의 일원인 마흐무드 가일라니는 “첫째 의제는 여성 인질을 풀어주는 것인데 이는 이슬람 율법이나 아프간 문화에서는 여성을 다치게 하거나 인질·죄수로 잡아둘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1단계로 즉각적인 여성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며, 그렇게 된다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과일 몇조각으로 겨우 연명 은신처 계속 옮겨 체력 고갈

### ■유정화씨 입 통해 본 인질생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된 한국인 인질들은 ‘언제라도 살해될지 모른다’는 공포감과 견디기 힘든 무더운 날씨, 불충분한 식사 등으로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질들은 구출작전을 우려한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은신처를 수시로 옮겨야 하는 탓에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40도를 넘는 더위와 15~20도에 이르는 일교차,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휴식 및 영양섭취도 인질을 힘들게 하는 요소이다.

인질 가운데 지난 28일 로이터 통신과 전화통화 한 유정화씨는 “우리는 과일만 조금 먹고 있을 뿐”이라며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우며 모두가 아픈 상태”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인질 임현주씨도 지난 26일 미국 CBS 방송과의 통화에서 “우리 모두 건강이 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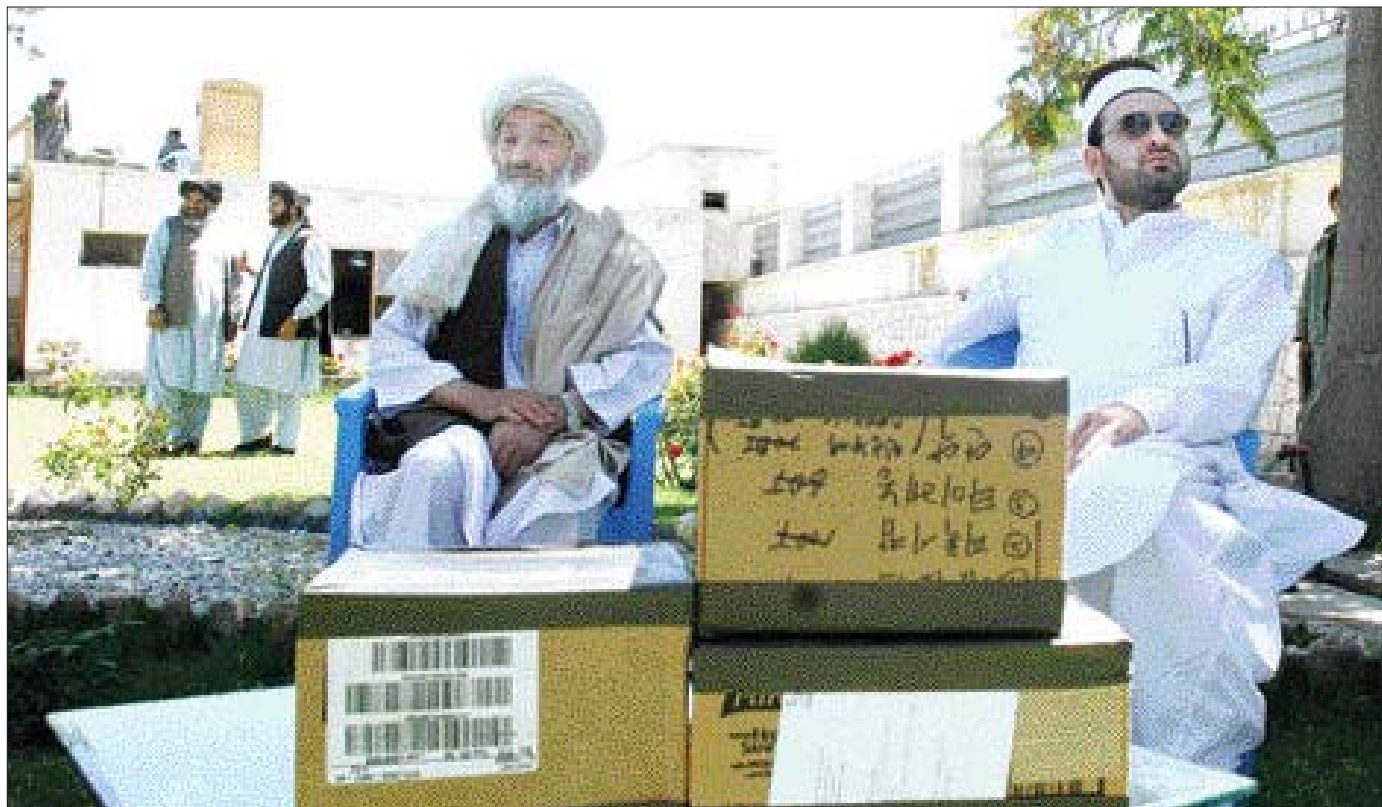
좋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인질들이 현재 섭취하고 있는 음식은 주로 마른 과일과 빵, 물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빵은 질이 떨어지고 냄새가 날뿐만 아니라 모래가 섞이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물도 각종 세균에 오염돼 있어 장염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명 씩 죽어갔다”는 탈레반으로부터의 위협은 여류 11일째로 접어든 인질들의 심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공포와 스트레스, 영양과 휴식의 결핍은 인질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사실상 거의 망가뜨린 것으로 짐작된다.

탈레반측도 인질 중 일부는 이미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울부짖거나 울음을 터뜨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지의 식사, 기후, 긴장상태로 볼 때 납치 10일을 넘기면서 피랍자들이 한층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난 28일 아프간 카불의 가즈니시 청사 앞에서 지역 원로들이 한국정부가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피랍된 한국인 인질들에게 전해달라며 보낸 의약품 상자 주변에 모여있다. /연합뉴스

## 아프간 사랑 남다른 영어학원 강사

### ■육성 공개 유정화씨는 누구

지난 28일 밤 로이터 통신을 통해 육성이 공개된 유정화(여·39·사진)씨는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로 아프가니스탄에 봉사활동을 갈 정도로 아프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뒤 대학에서 섬유디자인을 전공한 유씨는 졸업 후 국내 유명 인테리어 소품 전문업체와 의류업체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5~6년 전부터 서울의 한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해왔다.

세 자매 중 맏딸인 유씨는 쾌활한 성격으로 영어가 평소에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특히 유씨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해외 첫 봉사활동을 다녀 온 뒤 ‘아프간의 아이



들이 너무 안됐다’며 마음 아파하다 이번에 여름 휴가를 내고 두번째 아프간 봉사활동 길에 올랐다.

서울에 살고 있는 유씨의 어머니는 “맑은 평소에도 마음이 곱고 특히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며 “특히 지난 해에 아프간에 다녀온 후로는 그곳의 아이들이 눈에 밟혀 마음을 놓지 못하곤 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현지에서 영어 통역과 아프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교육 봉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로이터와의 통화에서 “피랍자 모두 아프다”라고 전했다. 유씨는 평소 혈압이 낮고 몸이 약한 편이었다고 유씨의 가족은 말했다. /연합뉴스

## 정부 “배목사 시신 항공편 준비되는대로 운구”

### 배형규 목사 아프간 출국전 시신 기증 유서 남겨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단체에 살해된 고 배형규 목사의 시신을 항공편이 준비되는 대로 가능한 빨리 국내로 운구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가능한 준비되는 대로 시신 운구를 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 항공 일정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 목사의 시신은 현재 아프간 바그람 기지에 안치돼 있다. 이 당국자는 또 “가족 분들이 어찌든 피랍자들이 귀환되는 시기에 맞춰 시신

을 운구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하 바 있다”고 전한 뒤 “그러나 현지 사정 등 관련 문제를 가족과 협의한 결과 가족의 동의를 얻어(조기에) 운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 다른 피랍자들이 석방돼 귀환할 때 시신을 운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신이 안치된 바그람 기지 사정상 시신 보관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우려, 조기 운구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배형규 목사는 아프간으로 출

국하기가 앞서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떠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분당 샘물교회와 안양샘병원 등에 따르면 배 목사는 지난 13일 아프간으로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 유서를 남겨 자신의 장가와 시신을 의료연구용으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배 목사는 유서에서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시신을) 환자 치료와 해부학 실습용으로 기증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신 기증 등 문제는 안양샘병원 원장과 의논해 결정하라”고 가족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이러한 고인의 뜻에 따라 배 목사의 사망이 확인된 뒤 지난 26일 안양샘병원 원에 시신 기증 의사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 아프간 피랍 사망 독일인 무릎·등서 총상 확인

지난 18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뒤 사망한 독일인 기술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양 무릎과 등에 총상이 발견됐다고 독일의 한 일간지가 29일 보도했다.

일간 빌트 암 손타그는 안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튀르키예 디드리히(44)의 시신이 26일 쾰른에 도착했으며 부검 결과 먼저 무릎에 총상을 입은 뒤 다시 등에 총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당뇨병을 앓았던 디드리히는 납치된 뒤 건강 악화로 이동이 어려워져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 협상 장기화...피랍자 가족들 건강 비상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피랍소식이 전해진 지 29일째로 접어드는 등 석방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피랍자 가족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다.

피랍자 가족모임 등에 따르면 피랍소식이 전해진 지난 20일부터 가족 10~20여명은 매일 가족모임에 나와 시시각각 협상소식을 전하는 TV뉴스를 지켜보면서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피랍사태 이후 대부분의 가족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건강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현재 의료진 3~4명이 피랍자 가족 사무실 주변에 상주하면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랍자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이 발생해 극도의 무기력감과 피로감, 소화기 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당신의 미래가 중요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미래에셋생명 SM/SFC 채용**

구분	직책	요건	우선
인사	인사팀	1. 대학 졸업 이상 2. 인사 관련 업무 경험 1년 이상	인사팀
	인사팀	1. 대학 졸업 이상 2. 인사 관련 업무 경험 1년 이상	인사팀
영업	영업팀	1. 대학 졸업 이상 2. 영업 관련 업무 경험 1년 이상	영업팀
	영업팀	1. 대학 졸업 이상 2. 영업 관련 업무 경험 1년 이상	영업팀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당신의 미래가 중요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미래에셋생명 SM/SFC 채용**

구분	직책	요건	우선
인사	인사팀	1. 대학 졸업 이상 2. 인사 관련 업무 경험 1년 이상	인사팀
	인사팀	1. 대학 졸업 이상 2. 인사 관련 업무 경험 1년 이상	인사팀
영업	영업팀	1. 대학 졸업 이상 2. 영업 관련 업무 경험 1년 이상	영업팀
	영업팀	1. 대학 졸업 이상 2. 영업 관련 업무 경험 1년 이상	영업팀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